

전남

진도 팽목항 100척 규모 마리나항 건설

해남 임하도 바다 생태계 20년만에 복원

국토부 계획 확정... 2019년까지 570억 투입

방파제·등대 등 설치 해양레저단지로 조성



《팽목항 개발 조감도》

진도군이 오는 2019년까지 임회면 팽목항을 100척 규모의 마리나항으로 개발한다. 진도군은 최근 국토해양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진도 팽목항의 마리나항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됐다고 9일 밝혔다.

서해안 해양레저관광단지 메카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팽목항은 진도의 서남쪽 끝에 있는 연안항으로 항구 양면에서 바다 쪽으로 내민 육지가 마치 방파제처럼 내항을 둘러싸 안쪽은 잔잔한 호수처럼 보이는 천혜의 항구다.

자은·암태·팔금·안좌·하의·장산 등 신안·다이아몬드 제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도와의 거리는 100km로 목포항의 167km보다 훨씬 가깝다.

자스포츠 문화정착 및 활성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박희경기자 hypark@

방파제 철거 연륙교 개설... 고기잡이·김 양식 활성화

해남군 문내면 임하도의 바다 생태계가 20여년만에 복원됐다. 해남군은 지난 8일 문내면 예라리와 임하도를 잇는 기존의 방파제식 임하교를 철거하고, 조류수통이 가능한 연륙교를 개설하는 어장복원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토사와 개펄 등 퇴적물이 증가하는 등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김양식은 물론 고기도 잡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상해면 65여인 을 들여 지난 2006년 말부터 문내~임하도를 잇는 길이 180m, 너비 8m의 연륙교와 연결도로(265m)를 내는 임하도 어장복원사업을 추진했다.

등 어업소득원 향상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다리가 건설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500ha 이르는 어장이 완전히 파괴돼 그 많은 고기가 잡히지 않아 생계까지 위협받았는데 새로운 연륙교 개설로 위급감은 물론 김양식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말했다.

한편 임하도에는 35가구 1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경기자 dia@

장성군 '농촌체험관광 유치' 발 벗고 나섰다

4월부터 축령산·장성호 등 초등교사 캠퍼어

장성군이 도시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장성군은 8~9월 문화소셜 해설사, 컨설턴트, 체험마을 주민대표로 구성된 캠퍼어 설계단을 대상으로 홍길동테마파크와 필암서원, 관내 6개 농촌체험마을 등을 돌며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41개교 12만명의 학생들을 농촌 체험관광에 유치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초등교육교사 캠퍼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축령산, 장성호 등 천혜의 자연과 홍길동 문화콘텐츠가 공존하는 지역특성을 살린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축령산 인근에 위치한 괴정·모암·금곡마을은 '피톤치드' 체험과

자연생태 관찰프로그램을, 자풍·내항 마을은 필암서원과 홍길동테마파크를 연계한 전통문화·농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호현 마을은 장성호 관광지 및 백양사를 연계해 심심수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3월, 6월, 9월 총 6회에 걸쳐 광주권 초등학교 교사 240명을 초청, 캠퍼어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농협중앙회 업적평가 장흥 정남진농협 1위



장흥 '정남진농협(조합장 고희천)'이 지난해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업적평가에서 지난 2006년에 이어 전국 1위를 차지, 우량조합으로 우뚝 섰다. 전국 181개조합 가운데 4그룹(70개 조합)에 속하는 정남진농협은 지난 한해 동안 '각종 사업의 성장과 경영상태, 조합원의 실익 지원사업 등의 세부항목을 계수화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4년연속 1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합병 당시 21%에 달하는 연체비율이 2%대로 떨어져 채권 건전성을 완전히 확보했다.



졸업 시즌 프리지어 수확 한창

담양군 대전면 중죽리 시설하우스 내 프리지어가 섰노란 꽃망울을 터뜨렸다. 프리지어는 졸업과 입학식 축하 꽃다발로 많이 사용돼 주문량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담양군 대전면 중죽리 시설하우스 내 프리지어가 섰노란 꽃망울을 터뜨렸다. 프리지어는 졸업과 입학식 축하 꽃다발로 많이 사용돼 주문량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담양군 제공>

목포항만 '해양안전기원제'

"올 한해 단 한 건의 해양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합니다"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은 9일 목포 연안력터미널 2층 대합실에서 여객선사 및 항만 관련 업·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목포항 해양안전 기원제'를 개최했다.

조선, 모래운반선, 예부선 등 선박과 관련된 잦은 사고로 인해 인명 및 해양환경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항만 종사자의 안전의지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삼열 항만청장은 "설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해이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한 여객수송과 항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피지 '수바외대'와 교류 협정

나주 고구려대, 글로벌 대학 발돋움

나주시 다시면에 위치한 고구려 대학의 활발한 대내외 교류활동이 주목 받고 있다. 고구려대학(총장 임재규)은 최근 남태평양의 중심국가인 피지의 '수바외국어대학'(총장 김우태)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서진>



리핀 만다나오 섬 부두인(Butuan)에 있는 커피농장과 '무농약 유기농커피'의 재배계약 체결했다.

양교는 이번 협정을 통해 수준높은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적인 학술연구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고구려대학은 지난 4일에도 나주천연염색문화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학생들이 졸업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고구려대학의 이 같은 활발한 교류 활동은 필리핀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커피바리스타'학과 교수 등 학과교 관계자 10여명이 필

장흥아동센터 탐진그룹

'나눔의 요람' 역할 특출

장흥지역 아동센터인 장흥탐진그룹홈이 '나눔의 요람'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장흥탐진그룹홈(센터장 차정숙)은 가정의 위기상황으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지난 2005년 8월 문을 열었다.

현재 만 5세에서 18세 이하 49명의 아동이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보호를 받고 있다. 이들 아동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이거나 조산 가정,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이다. 이들은 학기중에는 방과후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방학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문교사와 지원봉사 강사들의 이해 학습지도, 체력단련, 독서, 피아노, 요리캠프, 생일잔치 등의 '또 하나의 가정'생활을 보내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대인동상일부동산
(FAX)223-1772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다산공인중개사
한 010-7154-6996
▶빌딩(임대용, 투자용)
▶상가매매(첨단)
▶참고 및 공장용지

바다공인중개사
(063)581-5909
▶팬션건물(투자, 직영, 임대)
▶투자용 팬션 용지
▶매매: 6억 8천만원 (조정가능)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최고급 건축자재 사용)
● 위치 ●
최선을 전다방면민선부근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강영희
062)364-8700
H.P 010-4608-3700
아파트, 근린상가, 근린주택, 토지/건물/오피스텔, 토지(전/임/농/목지) 등 다양한 부동산 경매 정보 제공